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관계 측정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의 지각비교를 통해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계열 교수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유재웅 을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

Estim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COVID-19 Pandemic Information Channel Use,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Response

A Comparison of Personal and Collective Perceptions*

Wan Soo Lee**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Myungil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Namseoul University)

Jae Woong Yoo****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and Design, Eulji University)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differences in the pathways and influences of usage of channels for communication on the global COVID-19, risk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 at the personal and collective levels. A response sample t-test was first performed to estimate differences in related variables at the personal and collective levels, and a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ablish the pathways and influences among the relevant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ersonal-level analysis,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used the Internet mainly to find information about COVID-19 risks, but predicted that other people primarily used social media, newspapers, and television. In terms of social communication as a means of acquiring information,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individual respondents and others. Respondents also predicted that others would perceive the risks associated with COVID-19 to be greater than they did. In terms of behavioral response, they predicted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Dongseo University, "Dongseo Frontier Project" Research Fund of 2020(DSU-20200009)(이 논문은 2020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 wansoo1960@gmail.com, 주저자

*** jhmi0410@nsu.ac.kr, 교신저자

**** yoojw777@hanmail.net

that others would avoid contact with others and express a stronger sense of anger toward government policies compared with themselves. At the personal level, comparative analysis of pathways and influences between risk perceptions and preventive behaviors according to information channel showed higher levels of TV viewing, conversations with others, and Internet usage to be associated with stronger perception of COVID-19 risks. Stronger risk perception was associated in turn with increased avoidance of interpersonal contact and anger toward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pandemic. In the collective-level analysis, higher levels of TV viewing, conversations with others, and social media usage were associated with stronger perceptions of COVID-19 risks. Risk perception was also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voidance of interpersonal contact and anger toward government policies at the collective level. An examination of moderating effects to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variable pathway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between social media usage and the risk perceptions of others, rather than those of the individual respond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COVID-19, information channels, risk perception, behavioral response, 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

1. 연구목적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면, 이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찾는다(Wang et al., 2020).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정보의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주로 매스 미디어에 의존한다(김영옥, 2014; Van Bavel et al., 2020). 특히 사람들은 위험 이슈가 불확실할수록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된다. 뉴스 수용자들이 일상적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에 적극 나서는 것도 특정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이하나·황유리·정세훈, 2021; Westerman, Heide, Klein, & Walther, 2008).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COVID-19)는 바이러스 질병재난의 하나로 직접적인 경험이 어려운 불확실한 영역에 속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신문이나 TV 등 전통매체, 그리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한다(Wang et al., 2020). 따라서 대중들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위험을 지각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미디어가 전달하는 사회적 정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이보람·서경현, 2021; 전종우, 2021). 사람들이 대화 방식으로 나누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도 결국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관련 미디어를 많이 이용 할수록 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수준이 더 올라가거나 위험인식 역시 더 커진다(Reintjes et al., 2016). 위험인식이 커지면 행동반응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Witte, 1992). 이 과정에 사람마다 자신이 선택하는 정보 이용채널과 이에 따른 위험인식과 예방행동은 달라진다(Zhao & Wu, 2021). 선행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사람들이 위험상황을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보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파악하며(Kasperson & Kasperson, 1996), 위험인식이나 예방행동이 위험 평가대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이완수·최명일·유재웅, 2020; Snyder & Rouse, 1995). 하지만 위험상황에서 정보 이용채널에 따라 사람들의 위험인식과 예방행동이 어떻게 약화 또는 강화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정보 수용자가 이용채널에 따라 코로나19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메워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첫째는 코로나19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예방행동이나 예방정책 평가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는 코로나19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선택이 위험인식, 그리고 이 위험인

식이 예방행동과 예방정책 평가에 미치는 확산 경로와 영향이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다. 이 연구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y)(Kasperson et al., 1988), 비개인적 영향 가설(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Mutz, 1998), 그리고 병행과정 확장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을 적용해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에 따른 사람들의 위험인식 수준과 행동반응간의 확산경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은 위험이 어떻게 생성되어, 사회적으로 확장되며, 궁극적으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위험의 확산과정과 기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김영욱, 2014).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정보에 대해 개인 자신이 평가하는 결과와 그 개인이 타자들의 생각에 대해 간접 평가하는 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이원수 등, 2020). 병행과정 확장모델은 공포나 불안과 같은 위험인식이 위험관련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 틀을 제공한다(Popova, 2012).

우리는 이들 세 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위험정보 채널의 이용과 확산, 그리고 평가와 대응이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증 데이터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겠다.

2. 이론적 논의

1) 정보채널과 위험인식

위험인식은 주로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Slovic, 2000). 개인 차원의 위험 확산은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화의 정도가 많을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 또한 커진다(김영욱, 2014; Binder, Scheufele, Brossard, & Gunther, 2011).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위험정보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만으로 충분히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탐색하거나 수집한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그 출발은 매스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Woo & Chen, 2016).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체가 매스 미디어이다(Zhao & Wu, 2021).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도 미디어 이용을 통한 정보획득과 위험인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김여라, 2010; 김영욱, 2014; 유우

현·정용국, 2016; Leiss, 1996). 근래에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대중화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신문, TV, 그리고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뉴 미디어를 정보원으로 적극 활용한다(Sundar & Nass, 2001; Van Bavel et al., 2020).

미디어 이용과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해 왔다(김영욱, 2014; Kaspersen et al., 1988).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미디어가 위험요소를 자주 다룸으로써 이 위험요소에 대한 가용성(availability)이 일반 대중의 사고(思考)를 지배한다고 설명한다(Tversky & Kahneman, 1974). 이는 달리 말하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Wahlberg & Sjöberg, 2000).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여러 위험 사례에 대해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미디어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흑곰을 만나 번을 당할 위험에 대한 인식(Gore, Siemer, Shanahan, Schuefele, & Decker, 2005), 야생동물 멸종에 대한 위기의식(Hart, Nisbet, & Shanahan, 2011), 핵에너지에 대한 위험인식(Yeo et al., 2014), 빈발하는 연무에 대한 중국인의 위험인식(Wu & Li, 2017),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위험인식(You & Ju, 2020),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Brown, Coventry, & Pepper, 2021) 등은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위험정보와 위험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 사례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이 가운데 어떤 채널이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밝혀 본 연구는 없다. 일부 선행 연구는 신문이 사람들에게 비교적 쉽게 노출되며, 건강 정보를 전파하고 건강 주제와 문제를 자주 다룸으로써 감염병을 통제하고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다(Morton & Duck, 2001; Tchuente & Bauch, 2012). 하지만 매체 환경이 바뀐 최근에는 사회적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매스 미디어 가운데 신문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대신에, 포털과 함께 TV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근래에 들어 포털,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TV매체는 여전히 강력한 정보전달 매체로 평가된다. 닐슨과 그의 연구 동료들(Niesen, Fletcher, Newman, Brennan, & Howard, 2020)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6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뉴스나 정보이용 매체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TV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소은과 오세욱(2020)의 국내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코로나19 정보를 접하는 1순위로 지상파 TV를 꼽았다.

매스 미디어는 공중들의 위험인식을 지각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Bomlitz & Brezis, 2008; Snyder & Rouse, 1995).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질병 관련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로 얻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Addi et al., 2020). 질병 위험에 대한 교육 기능은 일반적으로 TV채널 또는 전용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 씻는 방법, 집에 머무르기와 같은 보건 예방을 상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완수, 2021). 매스 미디어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에는 이처럼 핵심적인 정보, 해석, 그리고 교육 기능을 한다(Tsoy et al., 2021).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질병재난에 대한 정보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소셜 미디어에 의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소은·박아란, 2020; Cinelli et al., 2020). 일부 연구를 보면, 소셜 미디어의 이용 정도가 메르스 사태(Choi, Yoo, Noh, & Park, 2017), 지카 바이러스 위험상황(Wirz et al., 2018), 그리고 코로나19 위험상황(Cinelli et al., 2020; Hussain, 2020)에 대해 시민들의 위험인식 수준에 비중 있게 영향을 미친다. 닐슨 등(2020)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주요 이용 매체는 인터넷 TV에 이어 소셜 미디어가 그 뒤를 이었다.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급변하는 위험상황 정보를 TV와 라디오 같은 전통 미디어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일수록 소셜 미디어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Tai & Sun, 2007).

엔지, 양, 그리고 비시와나트(Ng, Yang, & Vishwanath, 2018)는 전통 미디어 노출 보다 소셜 미디어 노출이 사회적 위험인식을 더 강화시킨다고 말한다. 소셜 미디어는 공중들이 쉽고,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매체의 하나이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팬데믹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한다. 오늘날 주요 대중매체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는 '친구', '친구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 관련 정보를 확산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타인의 여론을 더 광범위하게 탐지한다(Van Bavel et al., 2020). 소셜 미디어가 특정 문제를 과도하게 생산, 유통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에 많이 노출되고, 타자들의 행동을 더 많이 탐색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잘못된 코로나19 정보를 전파하고, 잠재적으로 위험인식을 만들어 내며(Cinelli et al., 2020; Van Bavel et al., 2020), 나아가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Liu, 2021).

2) 위험정보와 위험인식의 사회적 확산기제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재난이 퍼져나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이론의 하나가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y)이다(Kasperson et al., 1988). 전통의 위험 커

뮤니케이션 이론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한 부분에 집중했다면, 위협의 사회적 확산 이론은 위협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김영옥, 2014). 한 마디로 위협의 사회적 확산 이론은 위협이 생성, 확산, 그리고 반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해석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위협의 사회적 확산 이론은 공중들이 어떤 위협은 더 크게 느끼고, 어떤 위협은 무시하는 지에 대한 경로를 제시해준다(Zhao & Wu, 2021). 위협의 사회적 확산 이론은 정보처리과정, 개인적 반응, 사회적 집단행동이 위협의 사회적 경험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용한 분석틀로 볼 수 있다(Renn, 1991).

위험의 사회적 확산과정은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정보의 전달 메커니즘과 정보전달에 따른 사후적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된다(Kasperson et al., 1988). 여기서 정보 전달 메커니즘은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 전달하는 정보와 이를 사람들이 후속적으로 전달하는 간접 정보로 구성된다. 정보 전달 메커니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변수에는 정보의 양, 정보의 속성, 정보의 극화(dramatization)정도, 그리고 정보의 상징적인 함의 등이 포함된다(Kasperson et al., 1988). 이에 반해 반응 메커니즘은 위험정보에 대해 위험회피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Zhao & Wu, 2021). 위험의 확산기제는 결국 개인이나 집단이 위험 정보를 생산하거나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해석하거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부합해 추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옥, 2014).

위험정보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일차적 원인은 미디어에 의한 과도한 정보 유통에서 찾아진다(Mazur, 1984). 미디어가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표현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거나, 갈등적 요소를 강조하면 정보 수용주체들의 위험지각은 증폭된다(이완수, 2021). 예를 들어 미디어가 위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보도하거나, 부정적 속성으로 다루면 위험에 대한 공중의 반응은 한층 강화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위험정보는 개인, 집단, 조직, 그리고 사회와 같은 다양한 위험 관련 주체들에게 전달되며, 서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인식을 만들어 낸다(김영옥, 2014; 류현숙, 2020). 현대 네트워크 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나 인식은 특정 단위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대신 여러 경험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 구성원들은 위험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 도 하지만, 미디어 보도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소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포함)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기 도 한다.

위험관련 주체들은 위험정보에 반응하는 정보처리 시스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위협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정보 확산기제는 크게 개인차원과 사회차원에서 작동한다(Renn, Burns, Kasperson, Kasperson, & Slovic, 1992). 개인차원에서 위험 확산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대화 횟수와 함께 관심, 주목, 비교, 해석, 평가, 추정의 정도가 위험인식의 크기를 결정한다(Binder et al., 2011). 이에 반해 사회차원의 위험성은 조직(예: 기업, 대학 등)이나 사회의 가치, 기준, 기대, 규범에 부합하는 쪽에 맞춰져 집단적으로 움직인다(Palm, Bolsen, & Kingsland, 2021; Van Bavel et al., 2020). 위험의 사회적 확산과 정 이론은 정보의 전달경로와 위험정보의 영향력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Zhao & Wu, 2021).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경험이나 가치에 따라 위험인식이 형성되는데 반해, 집합적 차원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위험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성격을 반영한다(Renn et al., 1992). 이 과정에 매스 미디어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개인차원에서의 위험인지와 공포는 결국 사회적 확산기제를 통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위험인식과 사회적 공포로 자리 잡는다(류현숙, 2020). 위험정보의 확산경로를 보면, 위험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위험인식은 위험관련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킨다(김영옥, 2014). 위험은 위험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 미디어를 통한 위험정보 구성, 그리고 위험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해석방식에 의해 사회라는 공간 속으로 확산되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위험인식은 노출된 정보 이용채널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Renn et al., 1992). 예컨대 소셜 미디어는 대중의 위험인식 증감에 따라 위험의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사회적 확산 정거장(social amplification station)” 기능을 한다(Tsoy et al., 2021). 오늘날 대표적인 대중 매체의 하나인 소셜 미디어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 관점에서 보면 위험정보의 주요한 전달 매체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소셜 미디어를 경유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을 적용해 살펴본 일부 연구도 있다. 연구엔과 연구엔(Nguyen & Nguyen, 2020)은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코로나19 위험정보가 폭증함에 따라 오류와 허위 정보, 그리고 비시민적 정보가 혼란스러운 사회적 공론장을 지배하며, 이에 따라 대중들의 불안과 공포에 따른 행동 역시 과도하게 촉발된다고 강조한다.

3) 위험주체별 위험인식에 대한 평가

사회적 위험정보는 주로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을 통해 전파 내지 확산되어 나간다. 사람들은 위험정보를 개인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존해 얻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매스 미디어가 전달해주는 정보에 의존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 개인 자신의 평가와 주변의 이웃사람들이 느끼는 평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Davidson, 1983; Mutz, 1992). 사람들은 정보가 불확실하고, 위험할수록 타인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평가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머츠(1992)는 개인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는 “개인적 평가”와 매스 미디어가 형성한 여론에 기반하는 “비개인적 평가”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왔다. 머츠는 이를 “비개인적 영향 가설 (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로 명명하고 매스 미디어가 실제 경험에 기초하는 개인 자신의 직접 평가와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익명의 집합적 다중에 대한 간접 평가 간에 서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한다.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개인이 타자의 태도, 신념, 경험을 지각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설명한다(이완수·최명일·유재웅, 2020). 매스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what to think)’, ‘어떻게 생각하는(what to think about)’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경험하고 있는지(what others are thinking about and experiencing)’를 추론하는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정근·정일권, 2012; 서희정·양승찬, 2019; Mutz, 1998).

사람들은 일상의 위험 상황에서 타인들(others)의 태도, 신념,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Cialdini & Goldstein, 2004).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개인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이런 가운데 이완수·최명일·유재웅(2020)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를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적용해 개인 자신의 평가와 타인들의 생각에 대한 평가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 자신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덜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타인들은 경제위기를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추정해 서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위기상황에 대해 개인 자신이 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낙관적 편향성(optimism bias)”을 이론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소은과 오세욱(2020)은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예방행동에 있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위험정보에 대해 자신과 타인들이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가정을 제 3자 효과 이론(the third-person effect theory)을 적용해 입증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Liu & Huang, 2020; Yang & Tian, 2021). 제 3자 효과는 사람들이 “타인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이비슨(Davison, 1983)이 제안한 이론이다. 제 3자 효과 이론은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위험정보에 대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양과 티안(Yang & Tian, 2021)은 제 3자 효과 이론을 통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를 이용할 때 개인 자신이 타인들에 비해 더 세심하게 오류 여부를 살펴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리우와 후앙(Liu & Huang, 2020)

도 제 3자 효과 이론을 적용해 코로나19 가짜 뉴스에 대한 영향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특히 개인이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앱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을 때 자신과 타자 간의 지각 불일치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정보 이용채널에 따라 위험인식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평가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선택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위험인식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위험상황에 직면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은 덜 위험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낙관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왔다(Fragkaki, Maciejewski, Weijman, Feltes, & Cima, 2021).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잘 걸러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LeDoux, 2012; Mobbs, Hagan, Dalgleish, Silstone, & Prevost, 2015). 하지만 낙관적 편향성은 부정적 감정을 회피할 때에는 도움이 되지만(Strunk, Lopez, & DeRubeis, 2006), 질병 감염과 같은 위험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든다(Sharot, 2011). 따라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비개인적 영향”이나 “제 3자 효과”를 적용해 살펴보는 것은 보건증진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그리고 정책평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평가가 어떻게 행동반응 변화로 이끄는지 살펴보는 학술적 작업은 중요하다(Jahangiry et al., 2020). 코로나19에 대한 행동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몇몇 보건이론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행과정 확장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이하 EPPM)을 적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EPPM은 위험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Maloney et al., 2011; Witte, 1992).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예방행동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EPPM을 적용해 볼 수 있다(Jahangiry et al., 2020). 이 모델은 위험인식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권장되는 건강 행동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EPPM에 따르면 사람들은 위험상황에 노출되면 두 가지 인지평가(cognitive appraisals), 즉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권장사항의 효능과 인식된 위협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Jahangiry et al., 2020). 사람들은 위협과 관련된 인식된 위협과 위협대응의 효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험반응을 결정한다(Witte, 199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 위협 통제 또는 공포 통제 대응 중 하나를 행동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Zhao & Wu, 2021). 개인의 동기가 위협 통제일 때, 사람들은 위협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위협을 예방하는 방법(예: 보호동기)에 대해 생각한다. 이와는 달리, 공포 통제 프로세스는 내부 관심사(예: 감정 및 생리적 반응)를 통제하는데 보다 중점을 둔다. 물론 EPPM의 이론적 출발은 미디어 정보에 의한 위협인식과 행동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해 위협인식이 결정되며, 나아가 예방행동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EPPM 이론을 위협 정보요소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Jung, & Brann, 2014).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질병재난의 경우 미디어가 제공하는 위협정보에 따라 위협인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동반응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위험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위협인식이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해 왔다(김여라, 2010; 김활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현, 2018; 유우현·정용국, 2016; Heydari et al., 2021; Wise, Zbozinek, Michelini, & Hagan). 위협인식과 예방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보 확산의 매개 역할을 하는 미디어 이용 변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견된다. 스코펠리티, 패칠리, 그리고 아퀴노(Scopelliti, Pacilli, & Aquino,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TV 시청이 위협에 대한 공포지각을 높이고 손씻기, 마스크 끼기, 접촉회피, 그리고 사회적 격리와 같은 예방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지양, 황, 샤, 고쉬, 그리고 브라우어(Jiang, Hwang, Shah, Ghosh, & Brauer, 2021)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이용 노출이 사람들의 위협인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진시키는 등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낳는다.¹⁾ 메르스 이슈에 대한 매스 미디어와 예방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대인 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유우현과 정용국(2016)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관계를 매개하지 못했으나, 매스 미디어 노출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해 예방행동 의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Yang, 2015)은 미국 동북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대한 행동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 신념 모델(HBM)과 계획된 행동 이론(TPB)에 기반한 변인들을 가지고 검증한 결과, 매스 미디어 이용은 예방행동 의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사람들 간의 건강문제 토론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김여라(2010)가 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

1) 헤이dari와 그의 연구 동료들(Heydari et al., 2021)은 미디어 이용에 따른 예방행동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기존지식, 위협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위협인식이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를 보면, 신종플루(H1N1)에 대한 미디어 이용은 건강보호 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개인의 심리적 보호 동기로서 심각성과 취약성, 대처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 같은 매개 변인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미디어 정보채널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더 미치는지 밝힌 예는 많지 않다.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행동반응에 있어 미디어 변인이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견해도 있고, 반대로 대인간 토론과 같은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김활빈 등, 2018). 어느 쪽이든 위험정보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수용자 행동이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치넬리와 그의 연구 동료들(Chinelli et al., 2020)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확산이 위험인식을 높이고, 예방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선행 연구(Palm, Bolsen, & Kingsland, 2021)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제시 프레임은 백신 접종의 위험성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위험인식), 나아가 백신 접종 의향(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재난에 대한 위험인식의 정도는 정부의 예방정책 신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캐스퍼슨 등(Kasperson et al., 2003)은 사회적 확산 위험 개념틀(SARF)모형을 통해 정부와 일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위험의 증폭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전영환, 목진휴, 그리고 김병준(2016)은 원자력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식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개인 위험인식이 낮을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지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달리 이야기 하면, 개인의 위험인식이 높아지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종위험이나 미래위험과 같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이슈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공중의 위험인식과 공포감이 실제 이상으로 커지고,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류현숙, 2020). 따라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 신뢰도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3. 연구문제

사회적 질병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식은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형성되며, 이용하는 정보 채널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위험인식 수준이나 예방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Liu, Zhang, & Huang, 2020; Piltch-Loeb et al., 2021).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위험인식은

결국 그들이 접하는 위험에 대한 정보 채널별 이용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Slovic, 1987). 이러한 논의에 비춰볼 때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위험상황에 놓이면 일차적으로 매스 미디어에 의존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미디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혹은 행동에 미치는 정보 채널별 효과가 다르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위험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따라 위험인식이나 행동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 예컨대 오늘날에는 전통 미디어 이용보다 소셜 미디어 이용 빈도가 더 많다. 소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과거에는 주로 직접적으로 이뤄졌지만, 오늘날에는 온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진다.

미디어 선택행위의 이런 사회적 변화는 개별 미디어가 사람들의 위험인식과 이에 따른 행동반응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격리기간 동안에는 매스 미디어가 주요한 정보원 기능을 수행한다(Liu, Zhang, & Huang, 2020)는 점에서 개별 정보 이용채널에 따라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정보 이용채널별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이 평가대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예방행동에 대해 개인과 타인들이 내리는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해 왔으나(Cialdini & Goldstein, 2004; Liu & Huang, 2020; Yang & Tian, 2021),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이슈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본 연구는 없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개인적 위험인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 분노가 개인 자신이 직접 평가하는 “개인적 차원”과 개인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집합적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확산 경로와 영향 관계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코로나19에 대한 개별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평가는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평가 사이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평가 사이의 관계는 집합적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평가 간 경로와 영향의 정도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4.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데이터는 온라인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20~69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집됐다. 성별, 지역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여 온라인 조사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널들에게 설문조사 참여 메일을 보냈다. 1,063명이 접속했으며, 이 가운데 633명이 응답했다. 부실한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된 5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79명의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이 기간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2020년 1월 20일)한 초기 단계로 감염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특히 코로나19가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질병관리청에서 구분하고 있는 감염병 위험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해당된다. 연구자들은 코로나19에 관한 미디어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시기를 정보 이용채널별 위험인식과 행동조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단계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이로 인해 다양한 미디어 이용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활발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평가된다(이완수 등, 2020). 우리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이 시기를 주요 정보 이용채널,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 그리고 예방행동 또는 예방정책 평가 사이의 인과 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

Table 1. Respondent Characteristics

		Number	%			Number	%
Gender	Male	292	50.4	Region of reigence	Daegu/ N. Gyeongsang	287	49.6
	Female	287	49.6		Other	292	50.4
Age	20 - 29	99	17.1	Daily news consumption	0 - 1 hours	233	40.7
	30 - 39	105	18.1		1 - 2 hours	178	31.1
	40 - 49	131	22.6		3+ hours	162	28.3
	50 - 59	139	24.0	No college	97	16.8	
	60 - 69	105	18.1	Currently enrolled in college	38	6.6	
Monthly Income	0 - 2.99M	250	43.2	Education	College graduate	377	65.1
	3 - 4.99M	176	30.4		Graduate enrollment/ degree	67	11.6
	5M+	153	26.4				
Political identification	Conservative	97	16.8				
	Progressive	159	27.5				
	Moderate	323	55.8				

2) 측정 변인

이 연구에 이용한 변인은 정보이용 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평가로 구성하고 모두 리커트 7점 척도(①매우 그렇지 않다-⑦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은 ‘주변 사람과의 대화’, ‘신문’, ‘TV’, ‘인터넷’, ‘소셜 미디어’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코로나19 정보이용 정도 수준을 측정했다. 위험인식은 코로나19의 위험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행동반응은 두 가지 요인으로 측정했다. 하나는 예방행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리고 예방정책에 대한 정서적 평가로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 분노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을 단일문항으로 구성한 이유는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경우에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경우와 다중문항으로 측정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응답결과의 정규성(normality)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Maestas & Pollock, 2010). 이 연구는 특히 온라인 조사라는 방법론적 상황과 설문참여자의 응답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일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대상(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측정변인 사이의 확산 경로와 변인별 효과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정도(개인적 차원)와 개인의 관점에서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간접 평가의 정도(집합적 차원)로 각각 나눠 질문했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ersonal and Collective Variables

Variable	Personal	Collective
Conversation with others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conversation with others.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conversation with others.
Newspapers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newspapers.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newspapers.
TV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television.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television.
Internet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the internet.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the internet.
Social media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social media.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social media.
Risk perceptions	I tend to perceive COVID-19 as a personal risk.	My neighbors perceive COVID-19 as a risk.
Social distancing	I have tended to avoid contact with others since the pandemic began.	My neighbors have avoided contact with others since the pandemic began.
Anger about govt. COVID-19 policies	I feel angry abo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VID-19 response and prevention policies.	My neighbors feel angry abo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VID-19 response and prevention policies.

5. 분석결과

1) 연구가설 1의 결과

연구가설 1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이용 선택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분노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test(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했다(〈Table 3〉 참조).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의 경우에 신문(개인=3.33, 집합=3.58, $t = -5.66$, $p < .01$), TV(개인 = 5.87, 집합 = 5.98, $t = -2.91$, $p < .01$), 소셜 미디어(개인 = 4.28, 집합 = 4.65, $t = -7.09$, $p < .01$)는 개인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인터넷(개인=5.97, 집합=5.75, $t = 6.53$, $p < .01$)의 경우에는 개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한다고 평가했다.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과 타인 간에 대한 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개인 = 5.04, 집합 = 5.56, $t = -12.11$, $p < .01$)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개인 = 5.61, 집합 = 5.89, $t = -6.58$, $p < .01$),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분노(개인 = 4.47, 집합 = 4.91, $t = -10.41$, $p < .01$)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반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Table 3.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and Collective Responses

Variable	Personal		Collective		t-value
	Mean	S.D	Mean	SD	
Conversation with others	4.00	1.67	3.95	1.54	1.43
Newspapers	3.33	1.70	3.58	1.51	-5.66**
TV	5.87	1.18	5.98	0.98	-2.91**
Internet	5.97	1.06	5.75	1.10	6.53**
Social media	4.28	1.70	4.65	1.41	-7.09**
Risk perceptions	5.04	1.35	5.56	1.02	-12.11**
Social distancing	5.61	1.27	5.89	1.02	-6.58**
Anger about govt. COVID-19 policies	4.47	2.09	4.91	1.81	-10.41**

Note 1. ** $p < .01$

2)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분노 사이의 관계를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각 변인사이의 상관관계는 <부록 II> 참조). 이를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했으며, LISREL 8.53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먼저, 모델 적합도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다($\chi^2_{(11)}=57.55$, $p < .01$, $SRMR=.053$, $CFI=.90$, $NFI=.90$, $RMSEA=.086$). 일반적으로 경로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 CFI, NFI(TLI), SRMR,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CFI와 NNFI는 통상적으로 0.90 이상이면 양호하며, SRMR과 RMSEA는 0.05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 0.05~0.08 사이의 값이면 적절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Figure 1>에 제시된 변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중에서 주변사람과의 대화($\gamma = .18$, $t = 4.21$, $p < .01$), TV($\gamma = .21$, $t = 5.1$, $p < .01$), 인터넷($\gamma = .09$, $t = 2.12$, $p < .05$) 이용이 많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의 크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TV, 주변사람과의 대화, 인터넷 이용의 순서로 위험인식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beta = .47$, $t = 12.97$, $p < .01$)와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분노($\beta = .30$, $t = 7.5$, $p < .0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고려했을 때, 개인적 위험인식은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분노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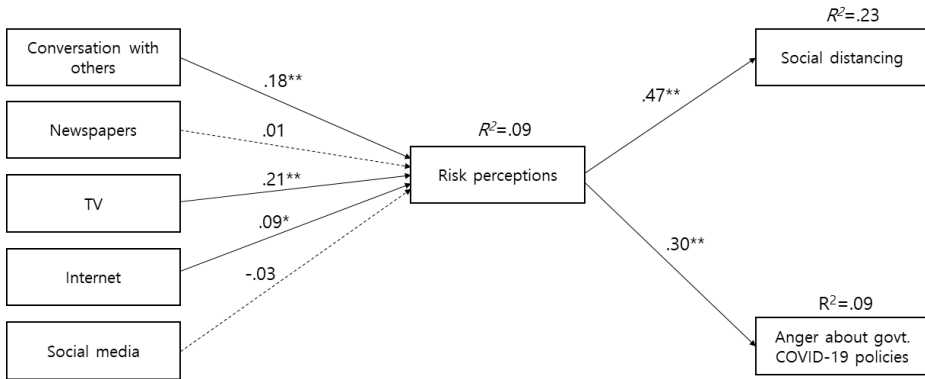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analysis findings (Personal)

Note 1. $\chi^2_{(11)} = 57.55, p < .01, SRMR = .053, CFI = .90, NFI = .90, RMSEA = .086$

Note 2. * $p < .05, **p < .01$

Note 3. Non-significant paths are indicated with dotted lines.

Note 4. All path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3)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분노 사이의 관계를 집합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적합도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_{(11)} = 49.97, p < .01, SRMR = .048, CFI = .92, NFI = .91, RMSEA = .078$). <Figure 2>에 제시된 변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 중에서 주변사람과의 대화($\gamma = .10, t = 2.40, p < .05$), TV($\gamma = .27, t = 6.54, p < .01$), 소셜 미디어($\gamma = .09, t = 2.13, p < .05$) 이용이 많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타인들의 위험인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의 크기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TV, 주변사람과의 대화, 소셜 미디어의 순서로 타인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타인들의 위험인식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beta = .42, t = 11.20, p < .01$)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 분노($\beta = .28, t = 6.89, p < .0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고려했을 때, 타인들의 위험인식은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분노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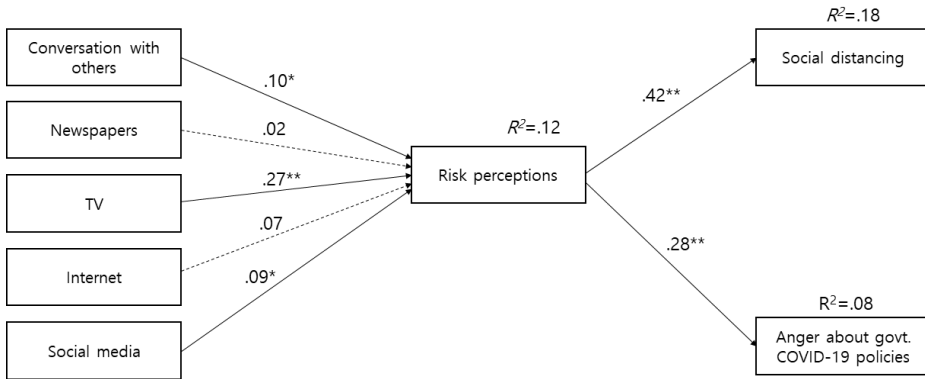


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findings (Collective)

Note 1. $\chi^2(11)=49.97, p < .01, SRMR = .048, CFI = .92, NFI = .91, RMSEA = .078$

Note 2. * $p < .05$, ** $p < .01$

Note 3. Non-significant paths are indicated with dotted lines.

Note 4. All path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4) 연구문제 3의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에 대해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의 경로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 사이의 경로계수(비표준화 계수)를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주변사람과의 대화→개인적 위험’ 사이의 경로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 = \frac{\hat{\beta}^1 - \hat{\beta}^2}{\sqrt{SE_1^2 + SE_2^2}}$$

Note 1. SE: Standard error, β : Path coefficient

분석 결과,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의 경로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는 ‘소셜 미디어→위험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t = -2.12, p < .05$). 이 같은 결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정보이용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집합적 차원이 개인적 차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경로는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of Personal and Collective Path Coefficient Differences

Path	Personal		Collective		t-valu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D	Unstandardized coefficient	S.D	
Conversation with others→Risk perceptions	.18	.04	.10	.04	1.41
Newspapers→Risk perceptions	.01	.04	.02	.04	-.18
TV→Risk perceptions	.21	.04	.27	.04	-1.06
Internet→Risk perceptions	.09	.04	.07	.04	.35
Social media→Risk perceptions	-.03	.04	.09	.04	-2.12*
Risk perceptions→Social distancing	.47	.04	.42	.04	.88
Risk perceptions→Anger about govt. COVID-19 policies	.30	.04	.28	.04	.35

* $p < .05$

6. 결론과 함의점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위험 커뮤니케이션 맥락 속에서 개인적 판단과 비개인적 판단 간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이 연구는 위험정보에 대한 평가대상에 따라 지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가설에 주목해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확산 경로와 영향력의 차이를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으로 구분해 온라인 설문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먼저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이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 자신(개인적 차원)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집합적 차원)은 신문, TV,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행동반응 차원에서도 개인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정부 예방정책에 대한 분노감을 더 크게 표출하는 등 민감성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서 정보이용 채널에 따른 위험인식과 행동반응 간의 확산 경로와 영향 관계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 할수록 각각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문과 소셜 미디어는

개인 자신에게 코로나19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 채널로 평가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정서적 분노가 더 커졌다.

집합적 차원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코로나19 위협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집합적 차원에서 위협인식과 행동반응과의 관계를 추정해 본 결과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 분노감 표출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위의 논의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터넷이, 집합적 차원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각각 코로나19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채널로 추정하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 위협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분노 사이의 경로와 영향관계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셜 미디어와 위협인식 간의 경로에서 집합적 차원이 개인적 차원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정보를 얻기 위한 채널 이용정도에 대해 개인 자신과 주변 사람들 간에 지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자신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평가한 가운데, TV, 소셜 미디어, 주변사람들과 대화, 그리고 신문매체의 순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더 자주 얻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개인 자신의 관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에서는 TV매체를 가장 우선으로 꼽은 가운데, 인터넷, 소셜 미디어, 주변 사람들과 대화, 그리고 신문매체의 순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더 자주 얻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 분석결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용채널 순서에서 신문, 주변 사람들과 대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경우는 개인 자신과 주변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TV와 인터넷 매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로 차이를 보였다. 즉, 개인 자신은 주요 정보 이용채널로 인터넷을 꼽은 반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TV를 주요 정보 이용 채널로 추정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 분석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대목은 개인 자신 보다 주변 사람들이 신문, 소셜 미디어, 그리고 TV채널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만으로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신문이나 TV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평소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평가과정에서 드러낸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도 개인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자

주 이용하고,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각해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이용채널 선택에 대한 개인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평가 간에 차이를 밝힌 본 연구는 메시지 효과에 치중해온 기존의 비개인적 영향 가설 또는 제 3자 효과이론을 정보 이용채널로 확장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위험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추정된 점이나 위험인식에 대한 행동반응의 결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나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해 주변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추정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은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 자신이 타인들보다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비개인적 영향 가설이나 제 3자 효과이론이 제기해 온 “상대적 낙관주의 편향(comparative optimism bias)”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준다.

셋째, 코로나19 위험정보의 확산 경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위험인식이 예방행동이나 예방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은 위험정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전파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론적 틀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채널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르며, 행동반응 역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존의 사회적 위험 확산이론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정보채널에 따라 위험인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위험이슈에 대한 사회적 확산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채널에 따라 위험상황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TV 시청이 개인적, 또는 집합적 차원 모두에서 코로나19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에 미치는 주요 확산 경로는 주변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을수록, 또 TV 시청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이슈에 대해서는 TV가 여전히 강력한 효과 매체임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신문매체는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19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인쇄 매체의 사회적 쇠락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영국 로이터 연구소가 코로나19 직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세계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와 일치한다(Nielson et al., 2020).

다섯째, 위험인식 정보매체로써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확인한 점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위험인식 과정에 개인 자신은 인터넷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로부터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은 정보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기 친화적인 정보채널을 달리 선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위험정보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소비하는데 반해,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로 타인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소셜 미디어에 의존해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 위험인식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미디어의 간접 효과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이론(예: 제 3자 효과) 연구에서는 개별 미디어의 효과를 분석하고,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비개인적 영향 가설이나 제 3자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디어 이용”이라는 범주 안에서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 등장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위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정보 채널별 효과를 구분해 관측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점을 얻을 수 있었다.

여섯째,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개인적, 비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 점은 위험에 대한 지각과 효능감에 따라 행동반응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상황에서 개인의 행동 동기가 위험을 통제하는데 맞춰질 때,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예: 대인 접촉 회피)이나 정서적 평가(예: 예방정책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는 병행과정 확장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인식은 개인적, 집합적 차원 모두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 정서적 분노보다 개인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가 주는 현실적 시사점은 무엇보다 팬데믹 상황을 공중 보건이나 건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사람들은 팬데믹 관련 정보를 주로 대인 또는 대중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얻으며, 이 과정에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위험상황과 행동반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개인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결과는 TV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건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아울러 최근 새로운 대중 정보 매체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의 이용 정도를 개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 점 역시 현실적 시사점을 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TV 공익광고를 내보내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물결효과(ripple effect)”를 차단

하기 위해 사회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언론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문제를 다룰 때 불안, 공포와 같은 위험표현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규범적 보도태도가 필요하다. 언론은 코로나19 보도과정에 사실적 보도, 객관적 보도, 과학적 보도, 권위있는 정보원 활용과 같은 헬스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로 인터넷, TV,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지목하고 있는 점은 이들 매체들이 사회적 위험 정보전달 과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정보 매체들이 코로나19 위험상황을 과도하게 또는 잘못 보도하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정보에 대한 기자 및 시민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험정보인 인포데믹(infodemic)의 사회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이원수, 2021).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인포데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질병 자체인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Cinelli et al., 2020; Islam et al., 2020). 정부 또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19 인포데믹에 대한 매체별 영향을 기능해 살펴봄으로써 개별 정보매체 특성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영향력, 정책적 위험통제,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사회적 토론, 그리고 코로나19 리더러시 교육 등을 보건역학 정책 수립과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정보 소비자들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위험인식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낙관적 편향성”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과 같은 예방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Van Bavel et al., 2020). 본 연구가 검증했듯이, 개인 자신은 코로나19 위험정보에 노출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 비해 실제 위험인식을 과소평가하며, 이런 결과에 따라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둔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음을 밝혀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질병재난에 대한 정보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확산 경로와 관계성을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Kasperson et al., 2003; Nguyen & Nguyen, 2020), “비개인적 영향 가설”(Mutz, 1998), 그리고 “병행과정 확장모델”(Jahangiry et al., 2020)을 통합 적용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점이 있다. 즉, 코로나19 위험정보가 어떤 채널 경로를 거쳐 사회적으로 전파되는지, 이들 정보 전달경로가 평가주체인 개인차원과 집합차원에 따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위험인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위험인식이 평가주체에 따라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별성은 어떠한지를 커뮤니케이션 맥락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도 있다. 첫째, 정보 이용채널의 어떤 속성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정보 이용채널과 이용 정도만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각 채널별 정보취득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둘째, 코로나19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신문의 경우 사람들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으로 신문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종이신문을 이용하는지를 밝히지 못한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단일문항으로 각 변인을 측정했기 때문에 경로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정교한 변수측정을 통해 구조방정식(SEM)을 실시하거나 뉴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I) 등과 같은 질적 분석을 시도해 정보 이용채널에 따른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인식에 미치는 정보채널 측정에서 종이신문 대신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상 신문으로 측정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필요도 있다. 넷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백신 접종 실시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과정에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 채널에 따라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인을 투입해 측정결과의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ddi, A. R., Benksim, A., Amine, M., & Cherkaoui, M. (2020). COVID-19 outbreak and perspective in Morocco. *Electron J Gen Med.* 2020; 17 (4): em204.
- Binder, A. R., Scheufele, D. A., Brossard, D., & Gunther, A. C. (2011). Interpersonal amplification of risk? Citizen discussions and their impact on perceptions of risks and benefits of a biological research facility.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31(2), 324-334.
- Bomlitz, L. J., & Brezis, M. (2008). Misrepresentation of health risks by mass media. *Journal of Public Health*, 30(2), 202-204.
- Brown, R., Coventry, L., & Pepper, G. (2021). Information seeking, personal experienc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OVID-19 risk perceptions: demographic and occupational inequalities. *Journal of Risk Research*, 24(3-4), 506-520.
- Choi, D., Yoo, W., Noh, G., & Park, K. (2017).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risk perceptions during the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2. doi: 10.1016/j.chb.2017.03.004.
- Cialdini, R. B., & Goldstein, N. J. (2004).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91-621.
- Cinelli, M., Quattrocioni, W., Galeazzi, A., Valensise, C. M., Brugnoli, E., Schmidt, A. L., Zola, P., Zollo, F., & Scala, A. (2020). The COVID-19 social media infodemic. *Scientific Reports*, 10, 16598. <https://doi.org/10.1038/s41598-020-73510-5>
- Davidson, W. P.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15.
- Fragkaki, I., Maciejewski, D. F., Weijman, E. L., Feltes, J., & Cima, M. (2021). Human responses to Covid-19: The role of optimism bias, perceived severity,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6, 110781.
- Gore, M. L., Siemer, W. F., Shanahan, J. E., Schuefele, D., & Decker, D. J. (2005). Effects on risk perception of media coverage of a black bear-related human fatality. *Wildlife Society Bulletin*, 33(2), 507-516. doi:10.2193/0091-7648(2005)33[507:EORPOM]2.0.CO;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Hart, P. S., Nisbet, E. C., & Shanahan, J. E. (2011). Environmental values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n examination of how environmental values and media use influence predispositions for public

- engagement in wildlife management decision making. *Society & Natural Resources*, 24(3), 276–291. doi:10.1080/08941920802676464.
- Heydari, S. T., Zarei, L., Sadati, A. K., Moradi, N., Akbari, M., Mehralian, G., & Lankarani, K. B. (2021). The effect of risk communication on preventive and protective Behaviour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mediating role of risk perception. *BMC Public Health*, 21(1), 1-11.
- Hussain, W. (2020). Role of social media in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Sciences*, 4(2), 59-60.
- Islam, A. N., Laato, S., Talukder, S., & Sutinen, E. (2020). Misinformation sharing and social media fatigue during COVID-19: An affordance and cognitive load perspectiv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59, 120201.
- Jahangiry, L., Bakhtari, F., Sohrabi, Z., Reihani, P., Samei, S., Ponnet, K., & Montazeri, A. (2020). Risk perception related to COVID-19 among the Iranian general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BMC Public Health*, 20(1), 1-8.
- Jiang, X., Hwang, J., Shah, D. V., Ghosh, S., & Brauer, M. (2021). News Attention and Social-Distancing Behavior Amid COVID-19: How Media Trust and Social Norms Moderate a Mediated Relationship. *Health Communication*, 1-10. <https://doi.org/10.1080/10410236.2020.1868064>
- Jung, T., & Brann, M. (2014). Analyzing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and health belief model constructs in texting while driving: news coverage in leading US news media outlet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52(4), 210-221.
- Kasperson, J. X., Kasperson, R. E., Pidgeon, N., & Slovic, P. (2003)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ssessing fifteen years of research and theory. In: N. Pidgeon, R. E. Kasperson, P. Slovic, (eds.)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p. 13–46.
- Kasperson, R. E., & Kasperson, J. X. (1996). The social amplification and attenuation of risk.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5(1), 95-105.
- Kasperson, R. E., Renn, O., Slovic, P., Brown, H. S., Emel, J., Goble, R., & Ratick, S. (1988).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 conceptual framework. *Risk Analysis*, 8(2), 177–187. doi:10.1111/j.15396924.1988.tb01168.x
- Leiss, W. (1996). Three Phases in the Evolution of Risk Communication Practic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5(1), 85-94.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21.113928>

- Liu, M., Zhang, H., & Huang, H. (2020). Media exposure to COVID-19 information, risk perception, social and geographical proximity, and self-rated anxiety in China. *BMC Public Health*, 20(1), 1-8.
- Liu, P. L. (2021). COVID-19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nd preventive behaviors: Managing the pandemic through personal responsibility. *Social Science & Medicine*, 277, 113928.
- Liu, P. L., & Huang, L. V. (2020). Digital disinformation about COVID-19 and the third-person effect: examining the channel differences and negative emotional outcom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3(11), 789-793.
- Maestas, C. D., & Pollock, W. M. (2010). Measuring generalized risk orientation with a single survey item. Available at SSRN 1599867.
- Maloney, E. K., Lapinski, M. K., & Witte, K. (2011). Fear appeals and persuasion: A review and update of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4), 206-219.
- Mazur, A. (1984). The journalists and technology: Reporting about love canal and Three Mile Island. *Minerva*, 22, 45-66.
- Mobbs, D., Hagan, C. C., Dalgleish, T., Silston, B., & Prévost, C. (2015). The ecology of human fear: Survival optimization and the nervous system. *Frontiers in Neuroscience*, 9, 55. <https://doi.org/10.3389/fnins.2015.00055>.
- Morton, T. A., & Duck, J. M. (2001). Communication and health beliefs: Mass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on perceptions of risk to self and others. *Communication Research*, 28(5), 602-626.
- Mutz, D. C. (1992). Impersonal influence: Effects of representations of public opinion on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Behavior*, 14(2), 89-122.
- Mutz, D. C. (1998).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g, Y. J., Yang, Z. J., & Vishwanath, A. (2018). To fear or not to fear? Applying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on two environmental health risks in Singapore. *Journal of Risk Research*, 21(12), 1487-1501.
- Nguyen, H., & Nguyen, A. (2020). Covid-19 misinformation and the social(media) amplification of risk: A Vietnamese perspective. *Media and Communication*, 8(2), 444-447.
- Nielsen, R. K., Fletcher, R., Newman, N., Brennen, J. S., & Howard, P. N. (2020). *Navigating the 'Infodemic': How people in six countries access and rate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Oxfor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Palm, R., Bolsen, T., & Kingsland, J. T. (2021). The Effect of Frames on COVID-19 Vaccine Hesitancy. *medRxiv*.
- Patterson, R. (1993). Collective identity, television and Europe. *National Identity and Europe*, 1-7.
- Piltch-Loeb, R., Savoia, E., Goldberg, B., Hughes, B., Verhey, T., Kayyem, J., ... & Testa, M. (2021). Examining the effect of information channel on COVID-19 vaccine acceptance. *Plos One*, 16(5), e025109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1095>
- Popova, L. (2012).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illuminating the gaps in research. *Health Education & Behavior*, 39(4), 455-473.
- Reintjes, R., Das, E., Klemm, C., Richardus, J. H., Keßler, V., & Ahmad, A. (2016). “Pandemic public health paradox”: time series analysis of the 2009/10 influenza A/H1N1 epidemiology, media attention, risk perception and public reactions in 5 European countries. *PloS One*, 11(3), e0151258.
- Renn O. (1991) Risk communication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In: Kasperson R.E., Stallen P.J.M. (eds)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Technology, Risk,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Series in Risk Analysis)*, vol 4. Springer, Dordrecht. https://doi.org/10.1007/978-94-009-1952-5_14.
- Renn, O., Burns, W. J., Kasperson, J. X., Kasperson, Roger, E., & Slovic, P.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37-160.
- Scopelliti, M., Pacilli, M. G., & Aquino, A. (2021). TV News and COVID-19: Media Influence on Healthy Behavior in Public Spa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4), 1879.
- Sharot, T. (2011). The optimism bias. *Current Biology*, 21(23), R941-R945.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0, 280-285.
- Slovic, P. (Ed.). (2000). Risk, society, and policy series: *The perception of risk*. Earthscan Publications.
- Snyder, L. B., & Rouse, R. A. (1995).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s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7(2), 125-145.
- Strunk, D. R., Lopez, H., & DeRubeis, R. J. (2006). Depressive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unrealistic negative predictions of future life ev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6), 861-882.
- Sundar, S. S., & Nass, C. (2001). Conceptualizing sources in online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1(1), 52-72.
- Tai, Z., & Sun, T. (2007). Media dependencie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The case of the 2003

- SARS epidemic in China. *New Media & Society*, 9, 987-1009.
- Tchuente, J. M., & Bauch, C. T. (2012). Dynamics of infectious disease where media coverage influences transmission. *ISRN Biomathematics*, doi:10.5402/2012/58127.
- Tsoy, D., Tirasawasdichai, T., & Kurpayanidi, K. I. (2021). Role of Social Media in Shaping Public Risk Perception during COVID-19 Pandemic: A Theoretical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7(2), 35-41.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 1124-1131.
- Van Bavel, J. J., Baicker, K., Boggio, P. S., Capraro, V., Cichocka, A., Cikara, M., & Willer, R.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4(5), 460-471.
- Wahlberg, A. A. F., & Sjöberg, L. (2000). Risk perception and the media. *Journal of Risk Research*, 3(1), 31-50.
- Wang, P. W., Lu, W. H., Ko, N. Y., Chen, Y. L., Li, D. J., Chang, Y. P., & Yen, C. F. (2020). COVID-19-related information sources and the relationship with confidence in people coping with COVID-19: Facebook survey study in Taiwan.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2(6), e20021.
- Westerman, D., Van Der Heide, B., Klein, K. A., & Walther, J. B. (2008). How do people really seek information about others?: Information seeking across Internet and traditional communication channel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3), 751-767.
- Wirz, C. D., Xenos, M. A., Brossard, D., Scheufele, D., Chung, J. H., & Massarani, L. (2018). Rethinking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Social media and Zika in three languages. *Risk Analysis*, 38(12), 2599-2624.
- Wise, T., Zbozinek, T. D., Michelini, G., & Hagan, C. C. (2020). Changes in risk perception and protective behavior during the first week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Royal Society Open Science*, 7(9), 1-13. <https://doi.org/10.1098/rsos.200742>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s Monographs*, 59(4), 329-349.
- Woo, J., & Chen, H. (2016). Epidemic model for information diffusion in web forums: experiments in marketing exchange and political dialog. *SpringerPlus*, 5(1), 1-19.
- Wu, X., & Li, X. (2017). Effects of mass media exposure and social network site involvement on risk

perception of and precautionary behavior toward the haze issue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1, 3975–3997.

Yang, J., & Tian, Y. (2021). “Others are more vulnerable to fake news than I Am”: Third-person effect of COVID-19 fake news on social media us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25, 106950.

Yang, L. (2015). Splicing noncoding RNAs from the inside out.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RNA*, 6(6), 651-660.

Yeo, S. K., Cacciatore, M. A., Brossard, D., Scheufele, D. A., Runge, K., Su, L. Y., & Corley, E. A. (2014). Partisan amplification of risk: American perceptions of nuclear energy risk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Daiichi disaster. *Energy Policy*, 67, 727-736.

You, M., & Ju, Y. (2020). Comparing Outrage Effect on the Risk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versus Fine Dust. *Health Communication*, 35(13), 1678-1685. doi: 10.1080/10410236.2019.1662555.

Zhao, S., & Wu, X. (2021). From Information Exposure to Protective Behaviors: Investigating the Underlying Mechanism in COVID-19 Outbreak Using Social Amplification Theory and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2, 1351.

최초 투고일 2021년 6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9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1년 10월 7일

부록 I. 국문 참고문헌

- 김여라 (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1호, 5-25.
- 김영욱 (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활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현 (2018).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19호, 123-152.
- 류현숙 (2020). 미래위험을 둘러싼 위험인식과 대국민 소통 :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FUTURE HORIZON>, 45호, 28-35.
- 서정근·정일권 (2012). 국회 표결행위에 미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머츠(Mutz)의 비대인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25호, 87-130.
- 서희정·양승찬 (2019). 비개인적 타자 정보 평가와 다수에 대한 경험이 개인의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정치정보연구>, 22권 1호, 127-162.
- 유우현·정용국 (2016). 매스 미디어 노출과 메르스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면대면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매개 및 조절 효과.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121-151.
- 이보람·서경현 (2021). 불안과 감염병 대처와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행동억제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권 1호, 91-107.
- 이소은·박아란 (2020). 편향적 뉴스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 <Digital News Report 2020> 주요 결과. <Media Issue>, 6권 3호, 1-13.
- 이소은·오세욱 (2020). 코로나(COVID-19) 관련 정보 이용 및 인식 현황. <Media Issue>, 6권 2호, 1-18.
- 이완수 (2021).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의 통합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3호, 306-375.
- 이완수·최명일·유재웅 (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 평가에 대한 비개인적 영향가설 검증: 경제단위와 평가시점에 대한 지각분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86-318.
- 이하나·황유리·정세훈 (2021).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검색과 공유 행동에 관한 연구: 성격 특성과 디지털 리더러시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65권 1호, 236-269.
- 전영환·목진휴·김병준 (2016). 위험인식 및 정부신뢰가 원자력 정책 수용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에 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권 3호, 85-110.
- 전종우 (2021). 코로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배양효과와 개인의 문화 차이. <언론정보연구>, 58권 2호, 66-91.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2020 언론 수용자 조사>.

부록Ⅱ. 측정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A	B	C	D	E	F	G	H
Conversation with others (A)		.24**	.01	.05	.19**	.17**	.03	.18**
Newspapers (B)	.23**		.02	.09*	.23**	.07	.02	.14**
Television (C)	.05	.07		.30**	.12**	.30**	.25**	.04
Internet (D)	.03	.01	.23**		.32**	.19**	.20**	.04
Social media (E)	.24**	.20**	.11**	.23**		.17**	.12**	.09*
Risk perceptions (F)	.18**	.06	.24**	.14**	.05		.42**	.28**
Social distancing (G)	.05	.07	.26**	.18**	.06	.48**		.26**
Anger about govt. COVID-19 policies (H)	.22**	.16**	.06	-.01	.11*	.30**	.22**	

Note 1.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variables at personal level (below diagonal) and collective level (above diagonal).

Note 2. * $p < .05$, ** $p < .01$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관계 측정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의 지각비교를 통해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계열 교수)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유재웅

(을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

이 연구는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용 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예방행동 변인 사이의 경로와 영향이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관련 변인이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관련 변인 사이의 관계 경로와 영향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위험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주변 사람들은 신문, TV와 함께 소셜 미디어를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써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행동반응에 있어서도 개인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감을 더 크게 표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보 이용채널에 따른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사이의 확산 경로와 영향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경우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할수록 각각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더 커졌다. 나이가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대인 접촉회피가 커졌으며,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분노도 커졌다. 집합적 차원의 경우 TV시청을 많이 할수록, 주변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코로나19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집합적 차원에 있어서도 위험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분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측정 변인 간의 경로가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개인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 이용 채널별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사이의 관계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점을 논의했다.

핵심어 : 코로나19, 정보채널, 위험인식, 예방행동, 비개인적 영향 가설